

주일 전례 봉사자					
구 분		5월16일(주님 승천 대축일)		5월23일(성령 강림 대축일)	
새벽 미사	해 설	황숙자 베로니카		김재실 에바리스또	
	1독서	박안홍 시몬		한선주 제노베파	
	2독서	손수향 카타리나		이정남 안젤라메리치	
교중 미사	해 설	이정애 실비아		조성물 스테파노	
	1독서	최문택 시메온		이두남 아가다	
	2독서	배해경 미리암		권미라 리오바	
화 답 송	 환 호 소 리 가 운 데 하 느 님 이 오 르 신 다 - 나 팔 소 리 가 운 데 - 주 님 이 오 르 신 다				
평일 전례 봉사자					
날짜	5월17일(월)	5월18일(화)	5월19일(수)	5월20일(목)	5월21일(금)
해설	도정숙 메히틸다	강경희 로사	도정숙 메히틸다	조성물 스테파노	김정숙 스텔라
독서	박행자 모니카	평화의 모후	구세주의 모후	정의의 거울	거룩하신 어머니

5월16일 (주님승천대축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최설(바오로), 노중수(요셉)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꾸리아
	미사안내	사회복지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김정숙(스텔라)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주양원(요셉) 후: 신강순(도미니코)
	차량봉사(유등)	장도영(마태오)
5월23일 (성령강림대축일)	미사 발열 체크(특전17:30부터)	안정준(바오로), 조양규(미카엘)
	미사 발열 체크(교중09:00부터)	교육분과
	미사안내	시설관리분과
	성당주변청소 및 주차안내	평화의 모후 Pr.
	차량봉사(좌곤리)	오일규(루카)
	차량봉사(휴먼시아)	전: 박안홍(시몬) 후: 백죽엽(예로니모)
	차량봉사(유등)	최영주(안젤로)

사랑터

제1734호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주일)

2021년 5월16일

주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산복로110 / 홈페이지: <http://jy.cathms.kr/>

전 화: 345-7086(사제관)/ 343-2446(수녀원)/ 343-2018(사무실)/ 010-8551-2906(연령회장)

미사안내: (월) 6:30/ (화,목) 19:30/ (수,금) 10:00/ (토) 16시어린이, 18:30특전 / (주일) 6:30, 10:30

- 이번주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 운동 동참 2차 헌금 있습니다.
- '백신 나눔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금을 모아 교황청에 보내어 백신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방식.
- 성모성월 고리기도
- 월, 수, 금, 일: 19시30분
- 화, 목, 토: 미사 후
- 성모의 밤: 5/25일(화)19시30분
- 일정표: 게시판 참조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회년 성지순례
- 교구 내 순례지 및 성지
1)복자 신석복 마르코: 명례성지
2)복자 윤봉문 요셉성지
3)거제 옥포성당
4)복자 박대식 빅토리오:확인 도장은 진례성당
5)복자 구한선 타대오: 대산성당
6)복자 정찬문 안토니오: 사봉공소
7)순교자의 딸 유섬이 묘
- 순례참여 및 방법: 모든 순례지 확인 도장이 찍혀야 성지순례 완주자로 인정
- 기간: 5/2~11/27일
- 순례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도와 가정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기도, 주모경과 신경을 바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 참조

- 교중미사 참례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구역별로 분산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5/22~23일)	특전(18:30)	2구역, 5구역	삼위 일체 대축일 (5/29~30일)	특전(18:30)	1구역, 기타
	새벽(06:30)	4구역, 6구역		새벽(06:30)	2구역, 5구역
	교중(10:30)	3구역 1구역, 기타		교중(10:30)	4구역, 6구역 3구역

-사정이 있는 분들은 원하시는 미사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교구청 신축모금 봉헌
- 그동안 유예했던 교구청 신축기금 모금을 시작합니다.
- 개인 봉헌 액수: 1년치 이상 교무금 (2년동안 분납가능)
- 교구청 건립은 6월경 기공식 예정, 내년 9월 완공 예정
- 본당으로 봉헌바랍니다.

교구청신축기금 본당계좌
농협843-01-070968
(재)마산교구천주교회 진영성당

교구청신축모금 : 5월 8일(토)-5월 14일(금)					
정영권 미카엘(2), 정재복 아벤티노, 이회근 미카엘(1-6) 신강순 도미니코(1-6), 정용경 골롬바(완), 배해경 미리암(3) 정병희 레오나르도(1-6), 서정아 프란치스카(2-5) 박종자 엘리사벳(1-2), 최창대 베드로(3), 조순순 안나(1-6)				이번주 봉헌액: 2,900,000원 누 계:22,409,000원	
교 무 금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성 명(세례명)	납부월
전영석(디모테오)	5	박민수(알로이시오)	4-5	김정숙(스텔라)	5
정영권(미카엘)	5	정재복(아벤티노)	5	윤무출(베드로)	4-5
이회근(미카엘)	1-6	이호형(프란치스코)	5	최인석(다니엘)	5-6
박순자(루치아)	3-4	진일용(루치아)	3-5	이갑례(젤마나)	4-5
조영주(로사)	5	이두남(아가다)	5	정용경(골롬바)	5
배해경(미리암)	5	박종술(안드레아)	5	노영곤(도미니코)	5
김순임(아나스타시아)	2	윤영규(마리안나)	1-12	정병희(레오나르도)	5
윤종국(아우구스티노)	2-5	장경훈(바르나바)	5	권미라(리오바)	5
장도영(마태오)	5	서정아(프란치스카)	5	최창대(베드로)	5
김정미(루치아)	5	김승원(마오로)	5	노말숙(루시아)	5
박경천(테레사)	5	이상국(요아킴)	5	송계용(바오로)	6
윤주국(알로이시오)	5	이상현(T.아퀴나스)	4-5	박안홍(시몬)	5
박준규(아우구스티노)	5	최용훈(안드레아)	5	김병찬(바오로)	5
신지연(마리스텔라)	5				
교구사업모금(2021년 배정액2,790만원중 578만원 봉헌)					
정용경(골롬바)	5	배해경(미리암)	5	장도영(마태오)	5
서정아(프란치스카)	5	김승원(마오로)	5	이상국(요아킴)	5
송계용(바오로)	6	윤주국(알로이시오)	5	김병찬(바오로)	5
박준규(아우구스티노)	5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농협 843-01-076467 / 예금주 : 진영성당 (교무금 책정자 성명으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주일 미사 참례자		315명
			교무금		4,332,000원
			주일헌금		1,763,000원
			교구사업모금		270,000원
			성소후원금		160,000원

[영혼의 양식]

통회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죄를 범한 다음 그 죄 처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그 죄에 대한 뉘우침, 후회하는 마음이 참 성인을 만드는 길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죄권을 가진 신부에게 사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도 통회한다는 데 있다.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면 고백성사도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그런데 통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

- 1)하등 통회- 이것은 범죄 후에 그 뉘우침이 범죄로 인해서 남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전연 무관하고 오직 자신이 그 죄로 받을 벌을 무서워하는 뉘우침이다.
- 2)상등 통회- 이것은 자신이 벌받는 것보다 상대방을 위조로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아픔에서 나오는 통회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크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들을까 봐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하등 통회요, 내가 꾸중 듣는 것보다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참회하는 것이 상등 통회다. 고백성사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등 통회만 있어도 충분하고 고백성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상등 통회만을 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상등 통회가 진심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 고백성사를 받아야 한다.

식어가는 기도

수도자 보시무스는 수도원장에게 와서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아무래도 더 이상 기도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수도원장이 물었다. 보시무스가 대답했다. “젊었을 때만 해도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더없이 포근해지곤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불 같은 것이 타올라 깊은 위로를 맛보곤 한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어 기도를 드려도 건조하고 황량할 뿐입니다.”

수도원장은 아무 말 없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물 주전자를 불 위에 얹었다. 그리고 물이 끓기 시작하자 잔에 따라서 보시무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끓는 물을 들이켜보시오.” 보시무스는 마셔보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투덜거리며 말했다. “아직도 펄펄 끓는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원장이 대꾸했다. “기도도 그와 같아요. 초심자의 기도란 항상 위안이라는 열기가 배어 있어 뜨거운 물과 같습니다. 당신이 뜨거운 물을 마실 수 없듯이 하느님 역시 초심자들의 기도는 제대로 들이키시지 못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시무스가 진지하게 물었다.

원장이 대답했다. “끓는 물은 식혀야 하듯이, 기도 역시 식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같은 상태에서 기도를 계속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기도는 하느님께 더없는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펄펄 끓던 물이 충분히 식자 수도원장이 다시 보시무스에게 물잔을 주었고, 보시무스는 그 잔을 마시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원장 앞을 물러나왔다.